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채널A, KBS1, KBS2, MBC, and KBC/SBS, listing program titles and times.



“놀이처럼 촬영하니 동화같은 영화 됐어요”

영화 ‘하삼관’ 절세미녀 옥란 役 하지원

“시나리오에는 ‘옥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 곳에 제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었죠. 일기처럼요.”
14일 개봉하는 영화 ‘하삼관’에서 절세미녀 옥란 역을 맡은 배우 하지원(37)은 최근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시나리오 중간중간에 혼자 상상한 신을 만들어 채워냈다”고 말했다.
중국 베스트셀러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하삼관 매형’을 바탕으로 한 영화 ‘하삼관’은 하삼관(하정우 분)이 11년간 키우던 아들이 ‘남의 피’라는 것을 알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
하지만 월작 소설과 달리 영화에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절세미녀라는 것 외에 옥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하정우가 선택한 배우가 바로 “어떤 신을 할애해 설명하지 않아도 옥란 역을 할 수 있는 배우” 하지원이다.
“삼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옥란이는 방에서 강냥이를 먹고 있었을 거라고 저 혼자 상상했어요. 이미 강냥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데 만두는 먹고 싶으니까 ‘내일 만두를 사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방에 철퍼덕 앉아 커다란 자루에 담긴 강냥이를 먹다가 삼관이 부르니까 새침하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웃음)”
극 초반 컷에는 옥란에게 반한 하삼관이 밤중에 옥란의 집에 찾아와 만두를 사주겠다며 데이트를 제안하는 장면을 놓고 하지원이 상상한 ‘이전 장면’이다.
하지만 사실 하지원은 처음에는 ‘하삼관’의 출연을 거절하려고 했다고 한다. “드라마 ‘기황후’를 찍고 있을 때였어요. 원작은 재미있고 좋지만 지금 컨디션에 영화를 하는 것도 조금 무리이고 옥란이라는 캐릭터가 웬지 제 옷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역할을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어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원은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새벽에 시나리오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며 “그전까지는 거절 확률이 더 컸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50대 50의 마음으로 (하정우를 만나러)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궁금했죠. 영화가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주변에서 옥란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왜 어울릴까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얼마 역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하정우 감독은 “옥란은 이렇다가 아니라 하지원이 그러는 옥란이다”, “하지원이 아이 셋을 둔 엄마다”라고 얘기했겠다고 한다.
하 지원은 “간단하게 얘기해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때부터 현장에서 “그냥 놀았다”고 한다.
“언가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음악을 듣고 하늘을 보고 아이들처럼 놀면서 릴렉스가 됐어요. 아이들이 저랑 많이 놀아줬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옥수수도 따러 가고... (웃음)”
촬영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 지원은 “연기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과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했다.
“하루는 ‘이락이’(노강민 분)가 인터넷에서 저에 대해 찾아보다 나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제게 와서 ‘이모, 그 나이가 정말이예요?’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누나는 시간 여행을 다니고 있어. 누나 나이는 그게 아니야’ 했죠. ‘이락이’(남다람)와 그런 코드가 잘 맞았는데 ‘이락이’도 앞에서 그 나이가 아니라고 거들어줬죠. (웃음)”
하 지원은 “촬영장 안에서와 촬영이 끝나고 나서가 똑같이 마치 꿈을 꾸 것처럼 행복했다”며 “그런 에너지가 모여져 예쁜 낭만이 담긴, 동화 같은 영화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착하고 맑은 역할을 많이 해서 악역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역할만 하고 싶었던 면도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 드리고 싶어요.”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2016 수능개념,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including news, drama, and educational content.

이문세, 13년만에 정규 앨범 발표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이문세가 올해 13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문세는 올봄 발매를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으로 정규 앨범을 내는 건 2002년 14집 ‘빨간내복’ 이후 13년 만이다.
그간 그는 공연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과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과 ‘참 좋은 시절’ 등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을 발표한 적은 있다.
이문세 측은 관계자는 통화에서 “10여 년 만의 새 앨범이어서 오랜 시간 준비했다”며 “현재 앨범을 작업 중으로 앨범 유통사와 정확한 발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간 이문세는 앨범보다는 공연 활동에 치중해왔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옛사랑’ ‘붉은 노을’ ‘광화문 연가’ ‘사랑이 지나가면’ ‘시를 위한 시’ 등 히트곡이 워낙 많은 가수인 터라 그의 투어 콘서트는 매년 성황을 이뤘다.
그는 지난 2011~2012년 ‘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에서 100회 공연 기록을 세웠으며, 데뷔 30주년을 맞은 2013년 6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5만 관객을 모은 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이문세’란 타이틀로 투어를 펼쳤다.

효자 아들 ‘처가 바라기’ 되다

EBS 4부작 ‘2015 신(新)결혼풍속도’ 2부 오늘 방영

금융업에 종사하는 영진(30) 씨는 4년간 직장 동료로 지낸 나리(28)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영진 씨는 나리 씨를 수년간 짝사랑했던 만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추진했다.
그는 나리 씨 부모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다. 하루가 멀다고 나리 씨 집을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몸이 불편한 나리 씨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회사에 휴가도 낼 정도다.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쑥하다 절을 한다더니 결혼을 앞둔 영진 씨는 오로지 나리 씨와 예비 처가를 위하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 얻은 나리 씨 가족에 비해 영진 씨 가족은 아들을 빼앗긴 느낌이다.
홀로 두 남매를 키운 영진 씨 어머니는 지상하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180도 바뀌었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다.
중간에 낀 처지인 예비 신부는 영진 씨가 한없이 고마우면서 눈치 없이 처가에만 잘하는 모습이 불안하기만 하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처가만 챙기게 된 효자 아들과 못내 서운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는 15일 밤 9시50분 EBS TV ‘2015 신(新)결혼풍속도’ 2부 ‘효자 아들의 처가바라기’ 편을 통해 방송된다.
4부작인 ‘2015 신결혼풍속도’는 다양한 갈등을 겪는 예비 신랑 신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보여주실 결혼 문제를 진단하고 결혼에 관한 새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휴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1월 25일 辛卯)

Table of daily horoscopes by zodiac sign (子, 丑, 寅, etc.) including birth date ranges and brief fortune descriptions.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